

2000년대 이후 개신교 교회공간 관련 연구경향 분석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박혜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회건축은 시대에 따라 혹은 신학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였고 예배의식에 대응하여 예배공간의 구성과 형태도 변화하여 왔다. 현대의 예배공간은 예배의식의 변화와 예배규모에 대응하여 대규모 강당 혹은 관람석과 같은 유형의 공간으로 획일화되고 있고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규백(2003)은 현대 교회건축은 모더니즘의 매너리즘과 기독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과도한 물질적, 양적 성장의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각 교파들의 교세 확장정책에 따른 수많은 소규모 개척교회들의 설립은 교회공간과 예배공간의 종교적 특성에 대한 고려나 디자인적인 접근 방법이 결여된 단순한 기능주의와 물량주의적인 공간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1세기 초반 스마트 혁명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융합(Hyper-Convergence), 초지능(Hyper-Intelligence)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간과 장소라는 제한적인 공간을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적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남선우,2022).

여기에 최근에 온 세계를 변화하게 만든 코로나19는 대부분 개신교 교회들의 예배 형식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예배의 형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고수해오던 예배와 교회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묻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일종의 행사처럼 장소적 공간을 교회라 부르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혹은 '예배를 보러' 갔던 것은 아닌지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일상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예배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기에,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교회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파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교회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침체기와 온라인예배라는 이슈에 대응하여 학계에서 이미 진행되어왔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보화 함으로써 후속연구를 기획하기 위한 기초논의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에 따른 공간에 대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2.1. 예배와 교회 (이하 이정구(2011)의 자료를 참조함)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신자들이 한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처소이며 모세의 떨기나무 자리와 같은 거룩한 장소였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장소와 건물의 원형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찾아볼수있으나 이런 회당과 같은 유형의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모이는 회중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도 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숨겨야만 했던 그들만의 예배장소와 공간에 대해 도상학적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왔으며 기독교에서 순교자 무덤위에 제단을 세우고 교회를 축조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장소성이기도 했다.

교회공간에서 동쪽은 낙원의 상징성을 지니며, 이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는 종교마다 그 나름의 역사적 산물이고 신앙의 표현이며 이것을 통해 신자들을 신에게 간구하고 찬양하며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의 믿음을 더 깊게 한다. 초대교회의 기본적 구조와 형태는 바실리카 형태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제대를 배치한 이래 오늘날까지 정착되었으며, 장방형의 로마네스크와 고딕형태로 발전시켜왔다. 교회공간의 전통적 구성은 지성소(제단)과 회중석, 성가대석과 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배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가구이며 이는 말씀선포와 성서독서를 위한 설교대와 독경대, 성만찬을 위한 제대, 세례대, 회중의자와 집전자의자 등이 있다. 이외 헌금함, 주보꽃이가 포함되며 이러한 성가구는 교단마다 규정된 예배이식을 집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고 제작된다.

2.2. 예배 유형

현재 한국 기독교의 예배 유형은 전통적으로 설교중심이며 교육적 의도가 강한 전통예배와 대중문화와의 결합으로 불신자들을 고려한 열린 예배유형의 현대예배로 분류할수있으며 그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 > 선행연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 (김기현 외(2009)의 표2를 재구성함)

구 분	특 성
전통 예배	가장 보편적인 설교중심의 예배이며 장로교회 예배의 전형적인 유형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설교중심의 예배, 교육적 의도가 반영됨 예배 인도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평신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임 설교와 예배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엄숙, 경건, 질서, 위엄, 수동성, 권위적이라는 강한 상징성이 나타남
현대 예배	전통예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배 유형 축제적인 예배형태이며 복음의 시각적 효과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대표적 형태로 열린예배가 있으며, 열린예배는 불신자를 고려하여 찬양, 뮤지컬, 연극, 율동 등과 같은 대중문화를 예배형식에 도입하여 예배의 참여성을 높임 예배공간의 상징적 요소들이 배제되고 사교, 민주주의, 능동성, 개방성이라는 감성적 체험을 중요시함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보조적으로 통계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크게 자료수집방법과 자료분석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을 위해서는 PRISM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데이터수집방법으로 사용되는 PRISMA 방법론은 identification, screening, included의 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Identification 단계는 데이터 추출 단계로서 2023년 5월 24일에 실시하였다. 교회공간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국내학술데이터 베이스인 DBPIA를 이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유형을 학술논문으로 한정 한 뒤 '교회공간' '교회건축', '예배공간' 키워드를 검색하여 총 246개의 자료가 추출되었다. screening 단계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들을 제외하는 단계로서, 1차적으로 모든 자료의 제목 및 초록을 확인 후 개신교 외 타종교논문 제외하여 135개의 자료가 선택되었다. included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자료의 초록 및 본문을 확인하여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않는 자료 및 중복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9개의 자료가 선택되었다.

3.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는 내용분석기법으로, 내용분석방법은 문헌연구의 일종으로 내용의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분석 유목은 유사한 선행연구의 분석 유목을 참조하여 연구시기, 학술단체 분야, 연구목적으로 구성하였다.

< 표 2 > 선행연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세부 항목
연구 시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5년 단위로 나누어 총 5개 구간 비교
발행기관 특성	발행기관명, 발행기관의 학문 분야
연구 내용	내용적 측면의 예배와 형식적 측면의 공간을 다루는 정도 및 목적의 차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단계로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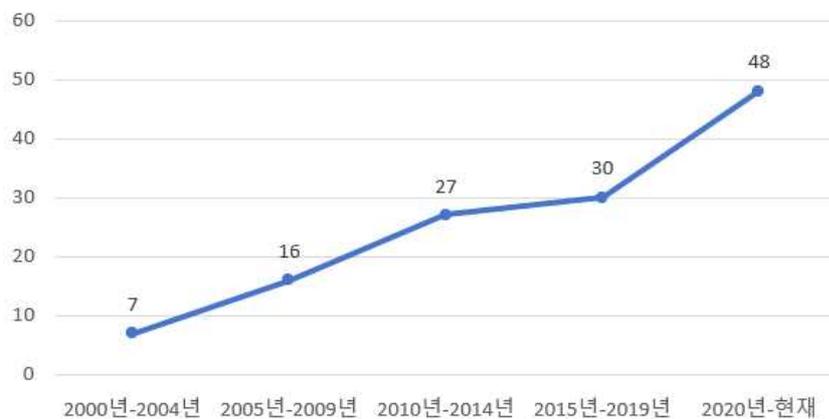
첫째, 연구시기는 2000년대 이후의 시기를 5년단위로 나누어 총 5개구간으로 분류한 뒤 각 시기의 학술지 발행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학술지 발행기관의 학문분야를 기독교학문 분야, 공간디자인학문 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연구 성과를 비교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의 기능에 해당하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등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교회와 그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형식적 측면인 물리적 공간인 교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다루는 정도에 따라 총 9개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로는 첫째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교회공간, 둘째,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약간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는 교회공간, 세 번째 일반적 관점의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 네 번째,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내부), 다섯 번째,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외부), 여섯 번째, 역사적 사료로서 교회공간, 일곱 번째, 재생으로서 교회공간, 여덟 번째, 온라인공간으로서의 교회공간, 아홉 번째, 기타 다양한 관점으로서 다루는 교회공간으로 구분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도별 학술 논문 발행 특성

교회 공간 관련 학술논문의 발행 수를 5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관련 연구의 발행은 총 7편이었으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는 16편, 2010년 이후 2014년까지는 27편, 2015년 이후 2019년까지는 30편,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48편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그림 1 > 연도별 논문 발행 수

4.2. 학술논문 발행기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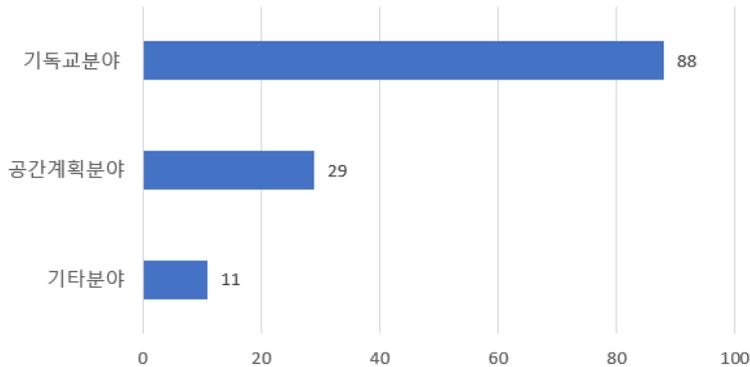
4.2.1 학술논문 발행기관 별 논문 수

교회공간 관련 학술논문의 발행기관을 조사한 결과, 총 43개의 기관에서 128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이 중 2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총 20개로 총 105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교회 공간 관련 학술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발행기관은 한국실천신학회로서 총 발행 논문 수의 23.4%를 차지하는 총 30개를 발행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고 있었다. 이외 두 번째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에서도 9개씩 논문이 발표되었다.

< 표 3 > 교회공간 관련 학술논문 발행 기관 별 논문 수

발행 기관	논문 수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종교문화비평학회, 통일연구원,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한국사회역사학회, 한국산업융합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생활환경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조직신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사회학회	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한국기초조형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선교신학회, 한국신학연구소	3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4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학회,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5
한국대학선교학회	6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9
한국실천신학회	30

4.2.2 학술기관 연구분야 별 논문 분포



< 그림 2 > 학술기관 연구분야 별 논문 발행 수

교회공간 관련 학술논문 발행기관의 연구분야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분야에서 총 88편이 발표되어 전체 발행 논문수의 68.8%에 해당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공간계획 분야에서 총 29편, 기타분야에서 총 11편의 논문이 발행되었다.

4.3. 학술논문 연구내용 특성

4.3.1. 학술논문 연구내용 주제별 논문 수

연구내용의 주제는 총 9개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교회공간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다루는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분류기준에 따른 논문수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 > 교회공간 관련 학술논문 연구내용 주제별 논문 수

no	연구 내용	논문 수
1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교회공간	31
2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약간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는 교회공간	20
3	일반적 관점의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	16
4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내부)	18
5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외부)	5
6	역사적 사료로서 교회공간	8
7	재생으로서 교회공간	7
8	온라인공간으로서의 교회공간	16
9	다양한 관점으로서 다루는 교회공간	7
	합 계	128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교회공간'으로 총 3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교회라는 의미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함에 따라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의 연구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졌다.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약간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는 교회공간'으로 총 20개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교회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 약한 정도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세 번째는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내부)'를 다룬 주제와 '온라인공간으로서 교회공간'을 다룬 주제가 모두 1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전자의 경우 공간의 건축학적, 의장적 분석관점에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물리적 공간인 교회공간을 분석하고 제안한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코비드19 이후 증가하게 된 온라인예배, 영상예배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효과성,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초기 기독교 정착 시기에 지어진 교회공간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 분석과 보존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교회공간의 재생을 위한 계획이 연구되었으며, 교회공간의 입지환경적 분석과 함께 외형적 형태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외 '다양한 관점으로서 다루는 교회공간'에서는 순례길, 수양관 등 교회공간 외 신앙의 공간을 다루거나, 타종교 공간과의 비교를 통한 교회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4.3.2. 주제별 대표 논문

첫째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교회공간'을 다룬 논문으로 김세광(2008)은 분화되어가는 세대별 예배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며, 그 대안으로 세대 통합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서 예배 변화의 틀 속에서 예배가 다분화(多分化)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분화의 결과로 상실되어 버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예배의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하였다.

둘째,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약간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는 교회공간'을 다룬 연구로 여러 연구자들이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다. 나형석(2005)은 예배 디자이너로서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의미있는 예배공간을 만들기 위해 심미적 선호도, 과시성, 편리성, 종교적 분위기 연출과 같은 부차적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예배 활동(ritual)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예배공간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배 공간 구성, 건물 건축이 성격상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이슈이며 과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순환.(2005)은 오늘날 교회건축, 특별히 개신교회의 건축이 아무런 예배신학적 고려 없이 건축설계를 하거나 그 내용물들을 배열하는 일을 지적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채색,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타에 대한 인상 등은 교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좌우하고 선교적 목적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신앙적 정체성 등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정구(2011)는 현대 한국의 교회건축에서 예배와 목회, 선교적 기능만이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교회내부공간을 위계적으로 분절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공간분절을 위해 유념해야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부분들과, 또 이미 구축된 공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안내하였다. 최영현.(2015)은 교회 성장 운동과 거대 교회 정신은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경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들은 원래의 교회 목적을 잃었음을 비판하고 한국의 작은 개신교 교회들이 신흥교회운동의 신학을 채택하여 초기 교회의 신학과 공동생활을 위한 실천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일반적 관점의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에 대한 김명희 외 (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사회봉사는 신학적으로 통전적 선교의 개념에서 비롯되며 사회 복지적으로는 교회가 지역사회안에 위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사업프로그램있와 이를 위한 교회 건축물의 복합공간으로서의 계획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hn Deok Weon.(2022) 역시 교회 건축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 포용과 환대, 겸손과 절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같은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구현된 교회 건축을 기대하였다.

네 번째,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내부)'에 관한 연구로 이규백.(2006)은 현대 교회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국내 개신교 예배공간을 대상으로 예배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인 강단의 인테리어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교회건축에서 예배

공간의 계획과 인테리어디자인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예배공간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방화, 기능화, 다양화 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다섯 번째, '형식적 측면의 교회공간(외부)'에 관한 연구로, 이정구(2003)는 분당 신도시 근교의 교회건축물들의 입지 장소에 대한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한국개신교회의 건축문화와 그 정체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환경파괴적이며, 주민 및 지역사회와 단절되었으며 한국전통과 무관하게 일부 포스트모던시대의 상업건축양식을 차용하여 신학과 예전에 무지한채 차별성을 중심으로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섯 번째, '역사적 사료로서 교회공간'에 대한 연구로 옥성득.(2008)은 기독교 근대화와 토착화의 관점에서 1895~1912년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발전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초기 한국 교회 양식의 기원을 검토하고 통계와 지도를 통해 서북 지역 교회의 수치적, 지리적 성장을 살펴본 뒤, 황해도 서북해안의 소래장로회(PCUSA), 평양의 중앙장로회(PCUSA), 전북 전주장로회(PCUS), 서울의 제1감리회(MEC) 등 5개 지역 교회의 건립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교회의 외부 특성을 조사하였다.

일곱 번째, '재생으로서 교회공간'에 대한 연구로 장금현.(2019)은 정동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해방 후 교회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신문, 보고서, 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공간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인간의 활동과 공간적인 실천이 결합된 공간을 의미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정동제일교회는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세우는데 그 힘을 결집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여덟 번째, '온라인공간으로서의 교회공간'에 대한 연구로 주상락.(2021)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넘어서 선교적, 목회적, 그리고 실천신학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holistic spatial mission and evangelism)를 제안하며 '제1 공간'인 가정과 '제2 공간'인 일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4 공간'인 온, 오프(올)라인 공간에서 미래 선교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정근하(2012)는 도쿄 T교회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성과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된 디지털 사이버예배의 지속적인 시청은 결국, 인격적인 만남을 희구하는 인간에게, 아날로그적인 인간관계로의 복귀, 즉 교회로의 복귀를 촉발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홉 번째, 기타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교회공간'으로 김건희 외 (2015)는 동일한 건축가가 서로 다른 근원과 교리를 가진 종교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각 종교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의 종교 건축 중 교회와 절을 그 대상으로 교회공간을 분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예배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기에,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해 2000년대 이후 교회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논문의 발행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시기에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하여 온라인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논문 발행기관의 연구분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3정도가 기독교 분야의 연구결과였다. 이는 형식적 의미의 물리적공간으로서의 교회공간보다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자루는 내용적 의미로서의 교회공간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결과로 반영된 공간계획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공간 중심의 연구 역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교회공간관련 연구의 주제 특성별 분류에서는 내용적 의미로서의 교회공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역시 이러한 내용적 의미로서의 교회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 적용되는 방향성 제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계에서 이미 진행되어왔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보화 함으로써 후속연구를 기획하기 위한 기초 논의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분류과정과 논의로 미래의 교회공간 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건희, 이규백.(2015).안도 타다오 종교공간에서 정체성 표현특성 연구.기초조형학연구,16(1),73-86.
- 김기현, 이규백.(2009).1990년 이후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공간특성.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18(5),175-182.
- 김명희, 김명환.(2004).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교회 건축물의 복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한국생활환경학회지,11(4),282-289.
- 김세광.(2008).한국교회 예배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안적 모색 -중소형교회를 위한 세대통한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신학과 실천,(15),11-38.
- 김순환.(2005).예배공간의 건축학적 고려에 관한 연구.신학과 실천,(9),135-196.
- 나형석.(2005).의미있는 예배공간 만들기.신학과 실천,(9),197-240.
- 남선우.(2022).메타버스의 교회교육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기독교교육논총,(71),241-276.
- 장금현.(2019).해방 후 서울지역 교회 공간 활용: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한국교회사학회지,(52),75-108.
- 정근하.(2012).사이버예배의 문제점과 교회 공동체의 의미 분석 - 도쿄 T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30),141-176.
- 주상락.(202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신학과 실천,(73),831-855.
- 최영현.(2015).소규모 개신교회를 위한 공간과 예배의 탐구- 초기교회 유형으로서의 Dura-Europos와 이머징 예배를 중심으로.종교와 문화,(28),79-107.

- 옥성득.(2008).초기 한국 개신교 예배당의 발전 과정과 특성 - 기독교 근대성과 토착화의 문제, 1895~1912 - .동방학지,(141),267-321.
- 이규백.(2003).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Archives of Design Research,(),45-52.
- 이규백.(2006).현대 교회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Archives of Design Research,(),173-182.
- 이정구.(2003).한국개신교회의 건축문화와 그 정체성:분당 신도시 근교의 교회건축이미지를 중심으로.신학사상,(122),110-139.
- 이정구.(2011).현대 한국고층교회의 공간위계 풍경 비판.신학사상,(155),237-258.
- Ahn Deok Weon.(2022).문화와 교회 건축, 그리고 21세기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주제와 과제.복음과 실천신학,62(),47-83.

